

☐ 홈 > 뉴스 > 해운 > 정책

"컨테이너 잔존가치 산정방식 표준화해야"

15일 COA Korea 3번째 미팅 열어

[1513호] 2011년 04월 22일 (금) 15:31:04

곽용신 ✉ chaser@maritimepress.com

컨테이너 박스 부족사태로 최근 컨테이너 신조 가격이 teu당 3000달러를 호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잔존가치를 체계적으로 산정하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상선 정성훈 부장은 컨테이너오너협회(Container Owners Association ; COA) 한국 지부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이비스호텔에서 개최한 '2011 COA Korea 회의'에서 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대략적인 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재산손실을 보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선사들은 공통된 컨테이너 잔존가 산출 공식없이 각사별로 각양각색으로 잔존가를 산출하고 기준가격도 과거 수준을 대부분 업데이트 하지 않아 컨테이너 잔존가가 일

정치 않았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박스가 손괴처리되는 경우 최종 소비자인 하주들로부터 일관성 없는 컨테이너 보상가 때문에 민원이 빈발하고 현재 컨테이너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선사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통상 컨테이너 리스회사들이 선사들에게 신조 컨테이너박스를 5년 단기 리스해줄 경우 신조가격에 RV(Replacement Value) 20%를 적용해 120% 정도를 설정하고 연간 5% 내외의 감각상각과 최종 잔존가치(Displacement Value ; DV)를 신조가의 50%이상을 책정해놓고 있다.

정성훈 부장은 "오늘 COA 미팅에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등 국내 정기선사들이 모인 만큼 대략적으로 컨테이너 잔존가치 산정에 대한 방식을 협의해 보다 합리적인 컨테이너 잔존가치를 산출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부장은 "이번기회에 선주협회와 선주들이 COA 워킹그룹에 참여해 컨테이너 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우선 오늘 논의된 바대로 컨테이너 연간 감가상각률은 4~6%, 최종잔존가치는 30%에서 최소 40~50% 수준으로 상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박스조인의 전병진 상무는 "대부분 국적선사들은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컨테이너 잔존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기준가를 업데이트 없이 과거 10여년전 것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컨테이너 손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COA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기준가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잔존가치 산정방식을 통일해야만 합리적인 컨테이너 장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1 COA Korea 회의에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고려해운, 양해해운, 장금상선 등 10개 정기선사 컨테이너 장비 담당자들과 선주협회 등에서 약 50여명이 참여해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한 최신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상선 정성훈 부장이 '컨테이너 감가상각률과 잔존가격 선정 표준화'를 발표했고 한진해운 정무연 부장이 '컨테이너 신존동향'에 대해, 영질글로벌 석창부 대표가 '컨테이너 신기술'에 대해, 광광훈 동아대 ICC 사업단 책임연구원이 '지능형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 KCC 배재철 차장이 '친환경 컨테이너 도료'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COA 한국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스조인의 전병진 상무는 "3번째 COA 한국 미팅을 통해 선사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한 것 같다. 이날 참석했던 여러 선사관계자들이 COA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COA 회원으로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2500달러의 회비를 내야하지만 한국선사들은 올해까지 500달러에 가입할 수 있다. COA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최신 정보는 물론, COA 글로벌 미팅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